

순천시 “기반·입지 탁월...우주항공산업진흥원 최적지”

市, 우주항공청에 영향들 부지 제안
수출·물류 조달 등 교통 인프라 강점
정주형 집적시설 조성 조기안착 지원
대전·사천-순천 클러스터 구축 제안

순천시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의 핵심 집행 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 도약에 속도를 높인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직접 방문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순천 유치의 당위성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공식 전달했다.

최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설립이 반영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중추 기관이다.

순천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완성 단계

에 진입한 산업 기반과 탁월한 입지 경쟁력으로, 시는 지난 2023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탑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사업, 위성(SAT) 개발, 방위산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신속한 공급망 구축에 유리하며, 인접한 광양제철소 및 여수국가산단과의 철강·화학 기반 소재 연계성도 뛰어난 남해안권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망 등 대외 수출과 물류 조달을 위한 최적의 교통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경남 사천(우주항공청)-순천(우주항공산업진흥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우주항공 행정 클러스터' 삼각편대 구축에 정책 기획과 연구, 행정 집행, 산업 진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체를 제안했다.

우주항공 관련 기능이 분산된 가운데, 행정·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권에 신



순천시가 지역 산업 기반과 입지 경쟁력을 앞세우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영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 제공>

규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지·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주항공청의 진흥원 구축 목표 연도인 오는 202

8년에 맞춰 영향들 일원에 약 7만㎡ 규모의 후보지를 건의했다.

공공기관 업무시설은 물론 주거와 문화, 숙박 시설이 완비된 정주형 집적 시설을 적기에 조성

해 기반의 조기 안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순천의 정주 여건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생태 도시 구조를 갖췄으며,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휴양 거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뛰어난 정주 경쟁력은 코스트코, 롯데캐미칼,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향후 진흥원 유치와 함께 순천시 자체 인공위성 개발을 본격화하고, 누리호 6호기 및 차세대 발사체 제작·조립,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우주항공 정책과 산업 일선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순천은 산업과 정주, 환경과 관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준비된 도시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최적지"라고 밝혔다. /순천=양홍렬 기자

고흥군, 미래형 첨단 농업 기반 구축 본격화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공모 선정
95억 투입 금산면 일대 첨단 ICT 조성

고흥 금산면 조생양과 재배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래형 첨단 농업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밭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95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금산면 일대에 노지 스마트농업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첫해인 올해는 39억6천만 원을 들여 시설 설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확보를 비롯한 관수 배관 설치, 통신망 구축 등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다진다.

이어 2027년에는 31억7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생육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배 관리 체계를 도입해 환경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28년에는 23억7천만 원을 들여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모바일 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운영 교육을 병행해 데이터 기반 재배 모델을 현장에 완벽히 안착시킬 방침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선정은 고흥 조생양과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 정체성 담은 관광 캐릭터 개발 착수

굿즈·콘텐츠 확장...관광 활성화 기대

담양군은 8일 "지역 대표 명소인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관광 캐릭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그동안 대들이·딸리(2000년대), 담이·양이(2014년), 판담(2017년) 등 시대별 상징물을 운영해 왔으나, 급변하는 흐름과 현대적인

시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사업은 캐릭터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담양의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기념 상품과 콘텐츠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담양의 자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캐릭터를 기획 중이다. 상표권 등록을 시작으로 군민과 관광객 선호

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 기념품(굿즈)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의 대표 관광자원을 담은 캐릭터를 통해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굿즈와 콘텐츠로 확장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현은 최근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의 후원으로 '2026년 다섯 번째 우프학교 개학식'을 가졌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현 제공>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우프학교' 5년 연속 후원

올해 수학여행·윈데이클래스 등 운영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이 여수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우프학교'를 5년 연속 후원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8일 여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현에 따르면 최근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의 후원으로 '2026년 다섯 번째 우프학교 개학식'을 가졌다.

우프학교(우리들의 프로그램 학교)는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소통 역량 강화를 돕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로 5년째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 우프학교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은 전국 투어 수학여행을 비롯해 윈데이클래스, 스포츠 활동, 소그룹 활동 등 여가 생활을 지원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년간 운영된다. 개학식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와 함께 지역 업체(썬이풍선&파티)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윈데이클래스 공개수업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명태 가나현 원장은 "금호미쓰이화학의 5년 연속 후원 덕분에 올해는 중증장애인들의 로망 및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지역상품권 할인율 12% 확대 운영

월 70만원 한도...3천개 매장서 사용

화순군이 지역 상품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운영한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류 상품권 구매와 모바일 상품권 충전 시 모두 12% 할인율이 적용된다.

특히 3월 한달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2%를 추가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상품권의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며, 이 중 지류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1

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스마트폰 앱 '차(CH AK)'에서 충전해 관내 약 3천개 가맹점에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없이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예산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군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보성군-몽골 우브르항가이도, 계절근로자 도입 맞손

문화·교육 지속가능 협력 모델 구축

보성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나선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브르항가이도 도시사 권한대행인 M. 바트조릭 부지사와 S. 다우수렝 노동복지서비스청 고용지원부장 등 몽골 측 관계자 8명이 참석해 계절근로자 송출과 운영 협력 방안을 공식화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입국 후 체류 관리, 인권 보호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서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협

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직후 몽골 대표단은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일대를 방문해 향후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농가와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근로·생활 여건을 현장 점검했다.

군은 앞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운영과 함께 문화·교육 교류를 병행해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업 인력난이 되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 영농철 농업기계 현장 순회 수리

11월까지 부품 교체·소모품 정비 등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현장의 영농 불편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마을을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수리센터 방문이 번거로운 농촌 마을을 직접 순회하며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 농업기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고쳐주는 서비스다.

군은 현장을 돌며 간단한 부품 교체와 소모품 정비 등 경미한 수리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기계 수명을 늘리는 장기 보관 요령도 안내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는 영농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명필 기자